

# 전방·일신방직 부지 공공기여금 5899억 활용은 어디에?

### 광주시, 도시계획 변경 협상서 기여비율 54.45% 확정 '전국 최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시민 체감 공공 사업에 우선 사용 방침

광주시가 전방·일신방직 부지 도시계획 변경 협상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5899억원을 공공기여금으로 확보하면서, 활용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여(금)'는 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할 때 토지용도 변경 등으로 얻은 이익금 중 일부를 공공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는 제도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전방·일신방

직 공장부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협상조정협의회 제11차 회의를 열고 전방·일신방직 부지 공공기여비율을 54.45%로 결정했다.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상승한 토지가치 상승분(1조835억원)의 54.45%인 5899억원을 공공기여금으로 받아낸 것으로, 공공기여비율이나 금액으로 따져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 같은 성과는 광주만의 특성이 반영된 공공기여금 제도 덕분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용적률 증가에 연동된 산식을 통한 공공기여충량 산정 값' 또는 '토지 가치 상승분의 40~60% 범위 내에서 공익적 측면을 정성적으로 판단해 산정한 값' 중 '공공기여충량'이 높은 것을 확정토록 하고 있다.

광주시는 특히 공공기여 범위를 토지 전체에 일괄 적용하지 않고 상업·아파트 신축부지 등 사업성이 높은 시설은 토지가치 상승분의 최대치인 60%를 적용한 반면 학교와 공공용지, 도로 등 기반시설에는 최소치인 40%를, 복합쇼핑몰, 랜드마크형 호텔 등 전략시설에는 40~45%를 차등 적용하는 등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광주시는 공공기여금 5899억원을 어렵게 확보한 만큼 시민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값진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공공기여금을 공공시설(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문화시설, 공공청사 등), 공공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공공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주택 등) 등에 사용해야 하는 만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모 있는 사업 등에 우선 사용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대상사업 확정 전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공공기여금 활용에 대한 당위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또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달 내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6월까지 사전협상 결과와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등이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하반기부터 건축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종호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은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가장 큰 이해관계가 걸린 공공기여비율이 결정된 만큼 이후 단계는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시민편의성, 투명성, 공정성에 기초해 관련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대학생 선거 참여 독려합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오전 서구 치평동 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남대 사회과학대·조선대 법사외대학장들과 지역 대학생들의 선거과정 참여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다가올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알리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전남 학교 내년 무상급식에 1204억 지원

### 도·교육청 5:5 부담...유·초·중·고·특·대안학교 19만5000명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은 2024년 무상학교급식 식품비 단가를 400원 인상해 총 120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보다 135억 원 늘어난 규모다.

식품비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균등하게 5대5로 부담한다. 지자체가 602억원(도 241억·시군 361억), 교육청이 602억원(지역농산물 구입비 164억 원 포함)을 지원한다. 전남지역 유·초·중·고·특·대안학교 1307개, 19만5000명의 점심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로 사용된다.

식품비 단가 인상으로 학생 1인당 단가(학생수 500명 기준)는 4111원(2023년 3711원)이 돼 전남지역 학생이 높은 수준의 급식을 제공 받게 됐다. 이로써 그동안 벌어진 급식 분야 교육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전남도는 지자체 재원만으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급식 단가를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어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 식품비 부담 비율을 전국 평균 수준인 5대5로 균형을 맞출 것을 도교육청에 제안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일시에 50%를 상향하는 것은 재정 부담이 가중되므로 매년 연차적으로 상향할 것을 주장했다.

전남도와 도교육청은 성장기 학생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자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담 비율과 식품비 단가 인상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했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부담비율 5대5, 400원 단가 인상으로 최종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지방정가 라운지

## "광주시 내년 청년 일자리 예산 53% 축소"

### 이귀순 시의원 지적

7년 동안 청년 5800명이 참여한 광주시 대표 청년 지원 사업인 '일경험드림플러스'의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약 53%나 적게 편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무 경험을 중요시하는 채용 추세에 걸맞게 5개월간 사업장에서 업무를 배울 수 있다는 장점과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예산이 깎여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귀순 광주시의원(민주·광산4)은 5일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광주시 필수 민생 3대 사업 중 하나로 공헌하던 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의 내년 예산이 올해(91억원) 대비 53% 가까이 축소돼 43억원만 편성됐다"며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당하는 데 동의하지만 왜 청년 중심 지원 사업이자 기업 지원 효과까지 있는 해당 사업



만 감당해야 할 몫이 이렇게 큰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광주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 7년째를 맞았다. 참여자는 5개월간 사업장에서 일을 경험하고 광주시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와 직무교육을 받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지역 청년 5800여명이 사업에 참여했다.

이귀순 의원은 "참여도와 인지도, 정책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지자체의 예산 상황을 고려해 조정하더라도 왜 예산이 대폭 삭감됐나"라며 "시에서 발표한 내년도 본예산 '4대 중점분야 투자' 중에도 위기를 희망으로 바꾸는 민생경제 사업으로 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이 포함돼 있어 더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광주, 인공지능 우수인재 육성 메카 발돋움

### AI사관학교 4기 수료식...14명 조기 취업·자격증 취득률 55%

'인공지능(AI) 대표도시' 광주시가 AI 우수인재 육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5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4기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 성과공유회 및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정수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단장, 김준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인공지능기업 대표, 제4기 수료생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사피온코리아, 구글코리아, ㈜메가존클라우드, 광주일자리종합센터 등 30여개 기업과 취업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채용박람회를 열어

수료생들에게 현장 면접, 구인정보 제공, 상담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인공지능사관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국가 인공지능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사업의 하나로 운영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전문인력 양성 기관이다.

이번 4기 사관학교는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총 1300시간에 걸친 인공지능(AI) 교육, 기업 연계 프로젝트 등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됐다.

4기 교육생 중 14명이 수료 전 조기 취업에 성공했으며, 자격증 취득률 55%, 10건의 공모전 수상

실적을 거뒀다.

특히 역량평가를 통해 선발된 우수교육생 4명은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4'도 참관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글로벌 미래먹거리 인공지능(AI)의 거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광주의 자랑이자,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미래인 여러분이 있다면 대한민국 대표도시 광주가 글로벌 인공지능(AI)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광주시는 구글클라우드, 독일 지멘스, NHN 등과 함께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함께하고 있고, 인공지능(AI)영재교 개교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정읍시의회

www.jcc.or.kr